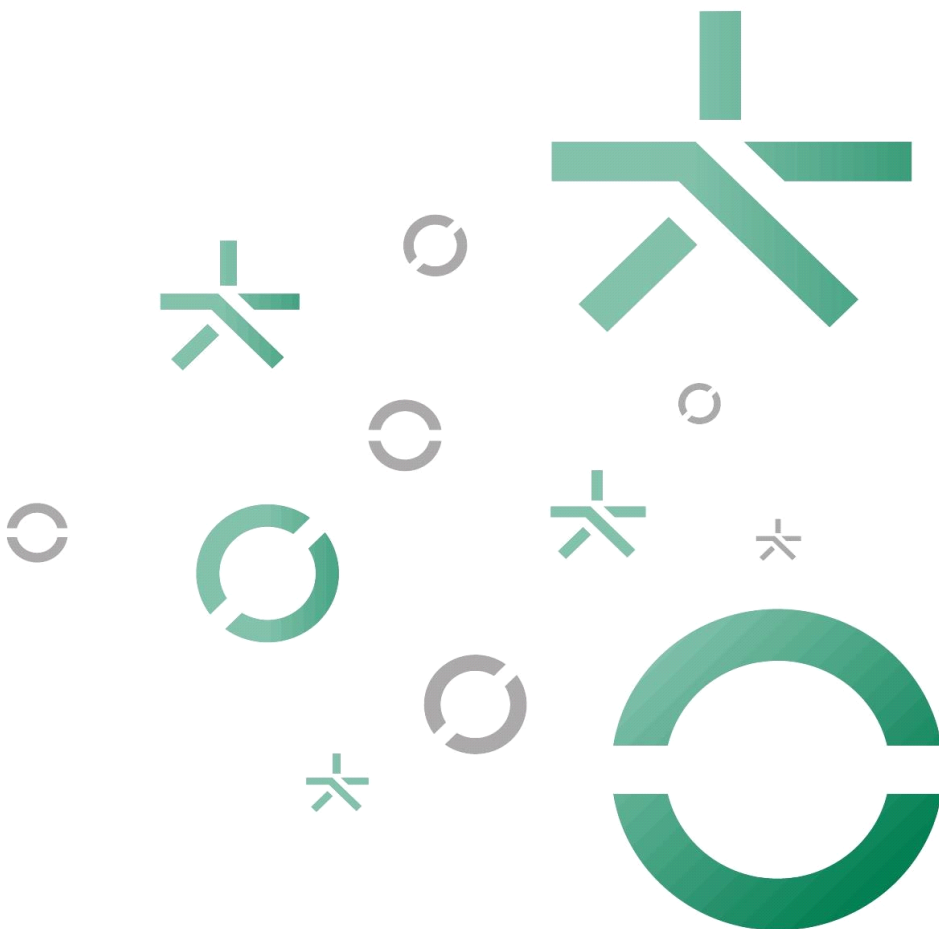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승현·조성윤



연구책임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032-260-2679

csy0422@ii.re.kr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계 관리 체계 개선 정책 우선 추진 필요

인천시 안전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대책 마련 필요

인천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안전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지표 체계 및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재난 사례 연계형 시스템 연동’, ‘시민 참여형 위험평가 도입 및 시민 체감형 데이터 모니터링 강화’, ‘재난안전통계 관리 체계 개선’ 네 가지 사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난안전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계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안전통계는 정책적 수요에 비하여 활용가능한 통계의 수,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 편의성 등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부족, 비공개 정보의 문제 등으로 재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통계 제도 및 시스템과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방향 검토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실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의 이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관련 기본 시스템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산업·경제 등 지역의 기본 현황과 안전 현황을 분석하였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취약 요인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지수 또는 GIS 기반 Mapping 방식으로 공개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인천시 재난안전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또는 지역사회(community)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 ‘정보’화 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플랫폼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유통’과 ‘활용’ 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안전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점 개선 방향은 ▲데이터 활용성 강화, ▲재난안전통계 관리 체계 개선, ▲시민 체감형 데이터 관리 등이다.

인천시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인천시는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지역 맞춤형 지표 체계 및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 ②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재난 사례 연계형 시스템 연동
- ③ 시민 참여형 위험평가 도입 및 시민 체감형 데이터 모니터링 강화
- ④ 재난안전통계 관리 체계 개선

주제어 #지역안전 #재난관리 #재난안전통계 #재난안전정보 #재난안전데이터